



리서치센터 리포트
바로가기

주도주 반등하며 코스피 상승

반도체 주가 부담 완화되며 반등
기관·MLCC 관련주 상대적 강세

주요 지표 일간 변동

KOSPI	KOSDAQ	KOSPI200
8,476.48pt (+0.97%)	916.18pt (-0.48%)	1,370.73pt (+1.34%)
달러-원 환율	韓 10년물 국채 금리	S&P500 선물
1,550.20 원 (+7.2 원)	4.0910% (-5.3bp)	7,510.00pt (+0.13%)

참고: 발간 시각 기준
자료: KRX

주요 수급 동향

	KOSPI	KOSDAQ	KOSPI200 선물
개인	+8,403 억	+3,909 억	+4,026 억
외국인	-38,202 억	-2,424 억	-8,344 억
기관	+29,330 억	-1,431 억	+2,063 억

참고: 발간 시각 기준
자료: KRX

KEY DRIVER

- 금일 국내 증시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반등했습니다. 최근 반도체 주가가 쉬어가면서 단기 과열 부담이 해소된 가운데, 메모리 반도체 수요 관련 우려가 과도하다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. 이날 KOSPI는 0.97% 올랐고, KOSDAQ은 0.48% 내렸습니다. KOSPI 거래대금은 약 41.1조원, KOSDAQ은 약 7.9조원을 기록했습니다. (KRX 기준)
- 외국인은 KOSPI를 3.8조원 이상 순매도했습니다. 외국인은 KOSPI에서 전기/전자와 금융 업종을 매도했습니다. 반면, 기관은 KOSPI를 2.7조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. 기관은 전기/전자와 금융 업종을 매수했고, 기계/장비와 제약 업종을 매도했습니다.
- 업종별로 살펴보면,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이 상승했습니다. 특히 삼성전기가 빅테크에 4,500억원 규모의 서버용 MLCC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. 그 외 전력기기, 게임주가 상승했습니다. 반면, 전일 강세였던 2차전지와 바이오 업종이 하락했습니다. 조선, 방산주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.
- 주요 종목 중에선 삼성전기(+7.16%), LS ELECTRIC(+6.25%), 삼성전자(+3.41%)가 올랐고, LG에너지솔루션(-9.61%), 리가캠바이오(-7.98%), 한화오션(-4.93%)이 내렸습니다.

Compliance Note

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. 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경, 대여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항목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.